

차별·소외 넘어 공존·배려... '포용 디자인' 실현

CULTURE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와 방향성 발표

‘포용 디자인’ 콘셉트 세계 디자인계에 신선한 영향 주며 주전시·심포지엄 등 구성...메니페스토·지하철 프로젝트

18일 라마다 총장에서 진행된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 및 방향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자리에서 올해 전시의 핵심 키워드는 ‘포용 디자인’이었다. 남을 아랑 있고 너그럽게 감싸 받아들인다는 사전적 의미처럼 포용은 광주사람들의 어머니산인 무등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무등의 뜻은 언덕이 없어 평평하다는 것과 등급 및 차별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수진 감독 역시 ‘포용 디자인’이라고 하는 화두에서 타인을 보듬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차별과 소외를 공존과 배려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힌데다 디자인계에서 포용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테마여서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역대 디자인비엔날레보다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간담회에서는 최 감독이 발표한 전시 주제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에 대한 답론과 전시 방향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각 전시관을 떠날때 큐레이터 면면도 밝혀졌다.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에는 디자인이 타인들을 조화롭게 포용할 수 있는지의 답론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포용 디자인은 디자인계에서 신상으로 인식되기엔 아직 멀다. 이번 사고로 디자인 전시 안에 이를 반영해 녹여낼지가 포용 디자인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드러난 전시 구성안에는 포용 디자인을 실현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먼저 제1 전시관은 ‘포용 디자인과 세계’라는 제목으로 2000년대 이후 국가 정책 과제로 부상한 다양한 디자인 접근 방식 중 하나이자 중요한 흐름인 포용 디자인의 다채로운 사례를 제시하며 제2 전시관은 ‘포용 디자인과 삶’이라는 제목 아래 일상 속 차별과 구별, 소외와 무관심으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론적 시각을 통해 포용 디자인에 접근한다.

또 제3 전시관은 ‘포용 디자인과 모빌리티’라는 제목으로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이동에 제약 받을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 및 방향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 18일 오후 진행됐다.

는 이들을 위한 대중과 개인을 위해 마이크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시하며, 제4 전시관은 ‘포용 디자인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로보틱스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과 결합한 포용 디자인을 살펴볼 예정이다. 제5 전시관은 심포지엄이나 72시간 챌린지를 위한 다이얼로그 및 디자인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 디자인비엔날레는 메니페스토 구축이나 광주지하철 프로젝트 실행, 학생 등 디자인 경험 공유를 시도하는 것 외에도 포용을 투영하는 내용

들을 주제 전시로 풀면서 심포지엄이나 패널 디스커션 같은 어떤 답론의 장을 만드는 동시에 포용 디자인 체험과 72시간 프로젝트 디자인 챌린지, 광주 지역에 있는 K 디자인 멤버십 학생들과 팀을 이뤄 작업을 같이 하는 등 디자인에 관련한 360도의 경험을 모든 분들에게 제공하는데 중점을 맞추고 있다.

심포지엄에는 패트리샤 무어나 라마 기라우 같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공간 구성 또한 리츠(뿌리 줄기) 개념을 기초로

포용 디자인이라는 콘셉트를 구현하고 가벽을 지양하는 대신, 포용의 답론을 투영하면서 인트로 공간을 구현해 편안한 동선이 되도록 할 복안이다.

이어 이날 간담회장에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학계를 망라한 디자인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포용 디자인을 각 전시관에 세부적으로 구현해낼 기회자들로 이해하면 된다.

제1 전시관의 큐레이터인 박보미 동서대 교수, 제2 전시관의 큐레이터인 이경미 더 공감 대표, 제3 전시관의 큐레이터인 차두원 모빌리티연구소 소장, 제4 전시관의 큐레이터인 이창희 카이스트 교수, 그리고 공간 연출을 기획한 이희진 홍익대 교수와 코디네이터 및 지하철 프로젝트트리를 수행할 최태욱 디자인바이 대표 등이 이들이다. 이외에 영국왕립 학교 LG전자 아모레퍼시픽 등 학교나 기업, 그리고 지역디자인 업체인 같이까지 등의 동참도 눈에 띈다.

최수진 감독은 “광주에서 2년에 한번 하는 디자인 페스티벌이 아니라 세계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곳으로서의 광주의 의미를 담아내고 싶다”면서 “포용 디자인적 노력의 사람들의 차이를 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고 관념과 포용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 다양한 각도에서 포용적 개념을 실현해가는 과정을 여러 가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인문학과 국악의 만남 ‘풍류음악회’

남도국악원, 진도군 옥주골 창작소 26일 박정경 원장 ‘굿 이야기’ 주제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은 2025 상반기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 두번째 공연을 오는 26일 전남 진도군 소재 옥주골 창작소에서 진행한다.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는 전문가 또는 유명 인사를 초청, 인문학과 국악을 접목해 선보이는 강의형 공연이다.

국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식을 통해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뜻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3월 12일 첫 순서를 시작으로 6월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총 8회 실시한다.

26일 두번째 강의를 국립남도국악원장 박정경 원장이 준비한다. ‘이성하고 아름다운 우리 문화, 굿 이야기’를 주제로 팔도의 굿과 무당, 한국 예술의 텃밭, 세습 예인, 웃음과 눈물의 진도 상장례에 대해 이야기한다.

박정경 원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 및 박사(문학박사)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악방송 라디오 ‘연구의 현장’ 진행과 국립남도국악원장으로 국악을 알리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정유정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단원의 ‘창부타령’, ‘노랫가락’과 전여경 단원의 ‘살풀이춤’, 박기량 안무자의 ‘복개춤’ 등 무대를 만날 수 있다.

공연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선착순 30명까지 전화로 접수 받는다. 입장료는 무료. 문의 061-540-4038. 김다경 기자 alsqsd194@



국립남도국악원의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 공연 모습.

음악인형극으로 만나는 어린이 별자리 세상

ACC재단, 내달 5~6일 어린이문화원 ‘별길따라 별별이야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사장 김선옥)은 ‘2025 ACC 펠트 플레이’ 첫 작품으로 창작 음악인형극 ‘별길따라 별별이야기’를 오는 4월 5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6일 오후 2시 등 총 3회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별길따라 별별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익숙한 서양의 별자리가 아닌 우리나라 별자리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음악이 더해진 인형극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전문배우의 섬세한 손길에서 살아난 인형이 극의 중심이 돼 관객을 별 이야기 속으로 안내한다.

무대 영상은 환상과 현실을 잇는 매개체가 되

고, 은은하게 반짝이는 빛이 별이 돼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머리 위에서 빛나는 별의 감성을 온몸으로 채워주며 우리 별자리에 대한 관객들의 관심을 이끌어 올린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관객은 깜깜한 밤하늘에서 자신만의 별 이야기를 만들며 동심을 느낄 수 있다.

공연은 4세 이상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예매는 ACC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한편 ‘2025 ACC 어린이극장 공동기획(펠트 플레이)’은 국내 및 지역 예술단체와의 상생을 통해 극장과 어린이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당재단의 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다. 4월 인형극 ‘별길



‘별길따라 별별이야기’ 공연 모습.

따라 별별이야기’를 시작으로 8월 무용극 ‘남극에서 살아남기’, 9월 전통음악극 ‘청비와 쓰담 특공대’에 이어 12월 음악극 ‘셋!’과 비언어오브제극 ‘중심, 빛깔 있는 꿈’이 공연된다. 입장료는 1만 5000원.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애티문화전당, 26일 ‘ACC 문화교육’ 설명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무대리 김상옥)이 올해 열리는 교육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5 ACC 문화교육 설명회’를 오는 26일 국제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지난 2023년부터 장·제작자 양성을 위한 ‘ACC 전문인’ 교육 설명회를 운영해 온 ACC는 올해부터 문화교육 전반에 대해 알고 싶은 참여자를 위한 한 해 동안 열리는 모든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ACC 배움인’(아시아 문화 예술교육, 인문·레마강좌/문화예술 치유교육, 박물관교육), ‘ACC 청소년’(청소년 문화예술교육), ‘ACC 전문인’(직군탐색, 콘텐츠 발굴/실행, 역량강화), ‘ACC 국제교육협력’(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 10주년 아시아 문화예술교육, 국제심포지엄 및 네트워크 워크숍) 등 ACC의 전 교육과정을 만나볼 수 있다.

이날 설명회 시작 전에는 ACC의 인기 강좌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먼저 아시아의 의식주 문화를 알아보고 직접 시식도 해보는 ‘아시아 의식주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아시아 의식주 여행’은 접수 시 항상 조기 마감되는 ACC 인기 프로그램으로, 이날은 커피와 과일로드를 체험한다. 또 현장 참여자에 한해 ‘인장(印章)’과 ‘나전칠기 그림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도 각 선착순 30명에게 주어진다.

선착순 150명을 모집하며 50명에게는 설명회 당일 특별한 기념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